

서초구,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특별점검 돌입

세계 마약 퇴치의 날 맞아 8월 말까지 집중 단속
민·관·경 합동 불시점검으로 유흥업소 관리 강화
예방 캠페인·신고 참여 확대로 경각심 제고 나서

서울시 서초구가 유흥시설에서의 마약류 이용 계층이 확산되고 관련 범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유흥시설에서의 마약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섰다. 2024년 8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마약 사건이 적발될 경우 마약범죄 행위자뿐 아니라 유흥업소 영업자가 이를 고사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영업 정지와 함께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구는 영업주가 스스로 마약 예방과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4월 지역 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리플렛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5월에는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

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향후에도 유흥시설 및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 준수와 신고 참여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2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유흥시설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범죄 사전 차단에 위한 민·관·경 합동 특별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 점검은 공무원 3명, 식품 안전 감시원 2명, 경찰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기존 위생 점검 항목인 건강 진단, 식재료 청결 상태,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유흥시설 내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공



서초구가 유흥시설의 마약범죄 차단에 나섰다. 서초구와 서초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계자들이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초구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

간을 중심으로 마약류 의심 흔적을 점검 확인한다. 객실, 화장실, 쓰레기통 등을 대상으로 주사기, 소형 비닐 포장재, 약물 카트리지 등 의심 물품과 사용 흔적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마약범죄가 유흥시설을 비

롯해 지역 내 전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마약류 예방 교육과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흥시설 내 마

약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마약 유통과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약 위험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고 '마약 없는 안전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



지난해 개최된 '촉촉콘서트'에서 학생 참가자들이 서울대 멘토와 진로·진학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구로구

구로구, 서울대 멘토 초청 진로 특강 내달 21일 개최

서울시 구로구가 다음 달 21일 구로문화누리 평생학습관에서 서울대 멘토들과 함께하는 진로 특강 프로그램 '촉촉콘서트'를 개최한다. 25일 구로구는 '촉촉콘서트'가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정보와 학과 전공을 소개해 진로 탐색 및 진학 설계를 돕는 소동형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구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서울대 드림컨설턴트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멘토의 대학 생활 경험과 학습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대 멘토 20명이 참여해 관내 고교 12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관심 있는 3개 학과를 선택한 후 홍보물에 있는 정보부니(QR) 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멘토링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만의 꿈과 의미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



용산구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를 겪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와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가발구입비를 지원한다. 용산구

용산구, 항암 탈모 환자 대상 가발구입비 최대 70만 원 지원

서울시 용산구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를 겪는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발구입비의 90%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항암 치료로 외모가 변하면서 심리적 위축을 겪는 암 환자의 자존감 회복과 치료 지속,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이상 암 환자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금 지급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도 해당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등이 포함된다. 최종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항암 치료에 따라 탈모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소견서에는 상병명과 진단 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가발구입비의 90%로,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지원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가발을 먼저 구매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용산구보건소 4층 보건의료과를 방문하면 된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

관악구, 별빛내린천 여름밤 음악분수로 물들인다



24일 관악구 별빛내린천 봉림교 상류에 조성된 음악분수가 형형색색의 조명과 함께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다. 관악구

봉림교 상류에 음악·조명 결합한 수변 분수 설치 10월까지 매일 3회 운영... 인근 상권 활성화 기대

서울시 관악구가 24일 별빛내린천 수변 무대에서 음악 분수 개장식을 열고 10월까지 매일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분수 공연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장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구는 지난해 운영한 별빛내린천 터널 분수에 이어 올해 음악 분수를 새롭게 설치해 수변 공간의 야간 볼거리를 확충했다. 별빛내린천 음악 분수는 봉림교 상류인 신림동 1642-7 일대에 조성된 수경시설이다. 길이 44m, 폭 2.8m 규모의 직선형 하상 분수로 설치됐다.

분수는 모두 5가지 형태의 물줄기를 연출한다. 최대 높이 20m까지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고사 분수를 비롯한 다양한 분수 시설에 음악과 조명을 결합해 야간 경관을 구성했다. 운영 기간은 10월까지다. 매일 낮 12시와 오후 7시, 오후 8시에 각각 20분씩 가동한다. 기상 상황이나 하천 여건 등에 따라 운영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분수 주변에는 관람객이 물줄기를 감상하면서 버스킹 등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수변 무대와 수변 테라스를 마련했다. 인근에는 신원시장과 별빛신사리 등

상권이 형성돼 있어 음악 분수 방문객의 지역 내 이동도 유도할 수 있다. 구는 음악 분수를 별빛내린천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단순히 하천을 지나가는 공간에서 벗어나 공연과 휴식, 지역 상권을 함께 이용하는 수변 관광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별빛내린천 홍수 예방을 위해 2024년 가설한 신화교 하부에도 경관 조명을 새롭게 설치했다. 주민 이용량이 많지만 교량 신설로 그늘져 어두워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발광다이오드(LED) 경관 조명 기구 174개를 설치해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야간 안전 확보에도 힘썼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

노원구, 사계절 즐기는 실내 어드벤처 '점프' 개장

서울시 노원구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실내 이색 레포츠 복합 체험 시설 '점프(JUMP)'를 27일 개관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점프는 구가 2018년부터 추진한 노원구립 어드벤처 테마파크로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시설은 노원구 한글비석로 102 일대 1만 4063.6㎡ 부지에 연면적 8612㎡,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섰다. 주요 체험 시설은 스베틀 드리프트 카트 △공중 활강 시설인 스카이 글라이더 △인공암벽인 클립 앤 클라임 △공중 장애물을 통과하는 스카이 트레일 △가상현실을 활용한 플레이 인터랙티브 △레이저 테그 방식의 사바이벌 게임 등이 있다. 신장 120cm 이하 영유아와 저연령 어린이를 위한 키즈 그라운드에는 트랩펄링과 정글짐, 터치스크린 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 보호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시설 내부에는 약 400석 규모의 푸드 라운지와 휴게 공간, 게임토이존 등을 마련했다. 구는 27일 오후 3시 개관식을 열고 28일까지 사전 모집한 체험단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을 진행한다. 일반 주민은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어



노원구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실내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점프'를 27일 개관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점프의 배틀 드리프트 카트 체험 이미지. 노원구

연면적 8612㎡ 규모 실내 레포츠 공간 조성 스카이글라이더·사바이벌 게임 등 체험시설

지는 프리뷰 개관 기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이용료는 정상가의 50%가 적용된다. 이용료는 시설과 이용 시간에 따라 5000원부터 1만 8500원까지 다양하다.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과 콘텐츠를

보완한 뒤 9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난해 수락유와 올해 노원기차마을-이탈리아관에 이어 점프에서도 '메이드 인 노원' 시설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1년 내내 날씨 걱정 없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힘껏 뛰고 신나게 즐기며 한 뼘 더 성장하는 곳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

금천구 '희망온돌' 우수 자치구 선정 쾌거 목표액 120% 초과한 21.6억 원 달성... 역대 최고 실적

서울시 금천구가 24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유공자 표창 수여식 및 성과공유회'에서 모금 사업에 크게 기여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모금회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구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간 협력 나눔 캠페인이다. 모금된 성금을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으로 사용한다. 이에 이날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전 개편 모금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자치구와 우수 유공자를 격려했다. 특히 금천구는 이번 캠페인 기간에 당초 목표액이었던 18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 총 21억 6000만 원을 모금하는 저력을 발휘해 주목받았다. 이는 목표 대비 120.3%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금천구 역대 최고 모금 실적을 기록하며 지역사회의 뜨거운 운영을 증명했다. 구가 취약계층에 김치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금(천구) 김



24일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과공유회에서 금천구 관계자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모금 성과로 우수 자치구 기관 표창을 받고 있다. 금천구

치가 온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구는 캠페인 기간 기부자 후원으로 모인 김치 7만3843kg과 구의 배분 사업으로 1만6000kg을 포함해 총 8만9843kg의 김치를 1만1302가구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 금천구는 행정동 부문까지 표창을 잇달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금천구가 우수 자치구로 기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관내 동 주민센터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한 '가산동 주민센터'가 행정동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가산동은 기업들이 밀집한 G밸리를 중심으로 기업과 주민들이 합심해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